

Chaotic Harmony: Contemporary Korea Photography Exhibition 2009-2010

Anne W.Tucker (Museum of Fine Arts, Houston, US)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젊은 작가 가운데, 박형근은 그의 전세대 작가들과 작품속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의 내부세계와 현실세계와의 관계면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의 표현처럼 "이 사진 속 공간과 장소들은 현실세계(actual world)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곳 임에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내면 속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곳에 더 근접합니다."¹ 계속되는 인터뷰에서 그는 "여기 보여지는 사진 이미지들은 저의 육체적 행위(performance)와 대상간의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진 속 인물들은 각각 저마다의 방식으로 장면(scene)속의 주인공으로 전환(transform)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들이지만 사진 찍혀짐을 통해 또 하나의 존재로 구체화(crystallized)되어 나보다 더 진실된 나를 표상합니다." 민병헌과 유사하게 박형근은 그가 촬영한 사진의 대상과 장소의 특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촬영한 녹색수초 위에 떠있는 찌그러진 공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그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의 작업 "텐슬리스 #5, 늪" 에 대해 미술사가 이안 제프리가 평하기를 "이 사진 이미지를 일반적인 사건의 과정하에서 추론할 때 우리는 그 볼의 위치가 누군가에 의해서 재조정 되었을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해 상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사진에서 보여지는 장면처럼 볼의 위치를 원하는 어떤 장소로 움직이려고 시도 할 경우, 우리의 육신은 아름다운 녹색의 수초들로 엄밀하게 위장되어진 그 깊이를 짐작하지 못하는 늪의 심연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즉, 극복 불가능한 인간의 육체적 한계가 암시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필연적인 숙명성, 그리고 그 사후의 영원한 세계를 반영하기 위한 사진적 형식임을 관객들은 이제 재빨리 이해하게 된다..... 이는 즉각적이고 현상적으로 대상들을 지각하지 않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감화력(epiphanies and emanations)으로 다가가는 박형근 만의 세계인 것이다."² '텐슬리스'시리즈에서 선보이고 있는 그의 다른 사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극적이고 당혹스럽다. 그 작업들은 언어로 묘사할 수는 있으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의 사진들은 연출 세트인지 실제 사이즈인지, 진짜새인지 모조새인지, 산업 사고의 결과물인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기물인지 그 무엇하나도 분명하지가 않다. 그의 사진에서 보여지는 모호한 내러티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동시에 매혹적이다.

¹ "Interview between Patrizia Bottallo & Hyung-Geun Park," in Imaginary Journey: Hyung Geun Park (Seoul: Gallery Zandari, 2008). p23

² 'Park's poetic' by Ian Jeffrey, Hyung-geun Park 2003-2006 Solo Exhibition Catalogue, 2006, p68-69